

필리핀 최근 정정 불안의 경과와 전망

(2006. 2. 27)

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

I. 최근 정정 불안의 경과

- 필리핀의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2월 24(금) 군부 쿠데타 위협 등을 이유로 '국가 비상사태(State of Emergency)'를 선포
 - 1986년 마르코스 대통령을 퇴진시킨 이른바 '제 1차 피플 파워'의 20주년 기념일인 2월 26일을 전후하여 대규모 반 아로요 시위가 계획되던 시점이었음.
- 비상사태 선포 후 3일 동안 주요 야당 지도자 등 100여명을 무더기로 체포하는 등 반대파에 대한 아로요의 강경 대응이 일단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.
 - 카톨릭계도 국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음.

II. 정정 불안의 배경

- 정정 불안의 근인(近因)은 2004년 5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 대한 개표조작 의혹과 아로요 대통령 남편의 비리 의혹 때문임.
-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
 - (1)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경제 : 독재와 정부의 무능력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40년째 '1인당 GDP 1천 달러'를 벗어나지 못하고, 전 인구의 40%가 1일 1달러로 연명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.

- (2) 아로요 정권의 실정 : 새로 출범한 아로요 정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음. 2005년 현재 총 외채가 GDP의 80%에 육박하고 있으며, 정권 출범 당시 약속한 일자리 800만개 창출, 외자유치, 민영화를 통한 재정개혁 등 주요 공약은 실현되지 않고 있음.
- (3) 유력 가문 간의 세력다툼 : 필리핀은 ‘마르코스’, ‘아키노’ 등 약 150여개의 유력 가문이 중앙 및 지방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‘피플파워’도 냉정한 의미에서는 유력 가문 간 세력다툼임.

III. 향후 전망

- 단기적으로는 아로요 대통령의 강경 대응으로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 정권이 붕괴되거나 정정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졌음.
 -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축출한 2차 피플 파워 때도 마지막 순간 군 수뇌부의 이탈(離脫)이 ‘결정타’가 된 경험이 있는 바, 아직 상황을 속단하기는 이르나,
 - 카톨릭계도 시위 자제를 호소하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의 선제적 이면서 강경한 대응이 효과를 거두면서, 아로요 지지세력이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상황을 장악한 것으로 분석됨.
- 중장기적으로는 최근의 정정불안 해결 속도에 따라 ‘과감한 개혁 추진’과 ‘타협을 통한 정권 안정’ 중 양자택일을 고민하게 될 전망
 - ☞ 현재의 소요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되는 경우 : 자신감을 회복한 아로요 대통령이 2005년 이후 추진해오던 세계개혁과 민영화 등을 좀더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.
 - ☞ 그렇지 않은 경우 : 현재의 소요사태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정치세력간 타협을 통해(예를 들어 세계개혁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통령의 권한 또는 임기를 축소) 정권의 안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.

작성자	국별조사실 과 장 김기상 e-mail : kskim@koreaexim.go.kr
-----	---